

시 민

문서번호	상황대응과-16488
결재일자	2018.11.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재난협력팀장	상황대응과장	안전총괄관	안전총괄본부장
방지호	代방지호	하종현	11/07 김학진
협 조	현장대응단장 종합상황실장		권태미 代이대우

# 재난현장 초기대응 협업기반 강화 추진계획

2018. 11.

**안전총괄본부**  
**[상황대응과]**

##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 제형성	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수립	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집행	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홍보	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기타사항	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<b>바른 우리말</b> 을 사용하였습니까?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	◆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<b>법적근거</b> 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
# 재난현장 초기대응 협업기반 강화 추진계획

재난·사고 현장의 초기대응 협업기반인 소방기관, 자치구의 협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대비훈련, 정보 공유, 업무 표준화 등을 지원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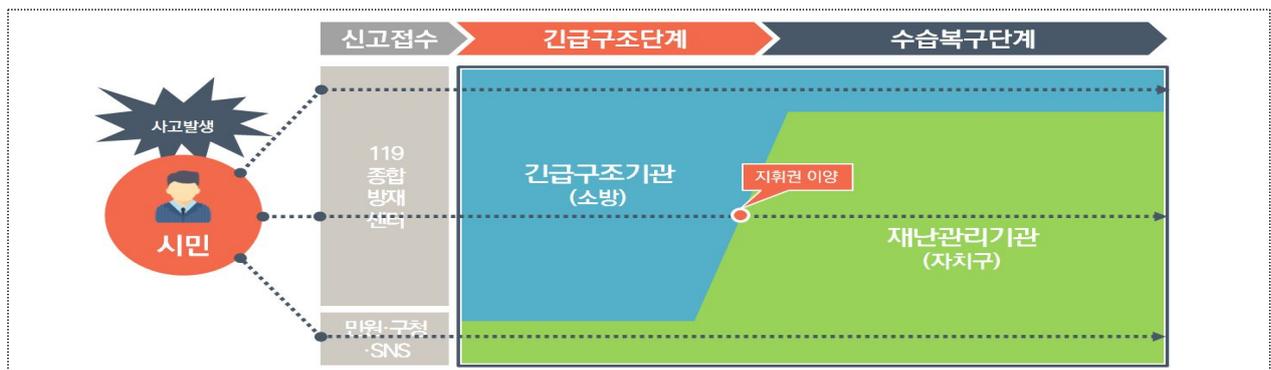
## I 재난현장 초기대응 협업기반

### □ 협업기반 현황

- 재난현장 초기대응 협업기반은 24개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과 25개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구성



- 재난현장활동은 긴급구조단계의 소방서(긴급구조통제단) 중심체계에서 지휘권 이양을 거쳐 수습·복구단계의 자치구(통합지원본부) 중심체계로 연계



→ 성공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소방기관과 자치구 간의 신속한 초기상황 공유, 유기적인 협업 등이 이루어져야 함

## □ 재난 대비·대응 주요협업 현황

### ○ 재난·사고현장 합동대응 → 서울시 전체 연 평균 14.4회

- 소방기관과 자치구간 합동 현장대응이 주로 이루어지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횟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4.4회이며 작년과 금년에는 5년간 평균 횟수를 초과

〈2013~2018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실적〉

구 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 (10월 현재)	'13~'17년 평균
가동횟수	17	16	12	10	17	15	14.4
동원인원	5,397	4,376	4,624	2,548	5,602	3,357	4,509
동원장비	796	874	703	625	649	710	729

### ○ 재난 대비 합동훈련 → 기관별 연 1회 이상 개최

-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주관 재난대비훈련은 매년 1회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한국훈련 기간에 실시
- 소방기관 주관 긴급구조종합훈련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서 관할구역 단위로 실시

### ○ 재난대응 협업체계 지원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업무 개선

- 재난대응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한국훈련,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지원, 재난관리평가 등을 담당하는 재난협력팀을 안전총괄본부 내 신설('15년)
- '16년부터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훈련을 재난현장지휘 역량강화센터를 통해 실시

〈 연도별 자치구 ICTC 훈련 실적 〉

구분	2016	2017	2018. 10월 기준	비 고
훈련회수	18회	26회	24회	

## II 개선필요사항 및 추진과제

### □ 개선필요사항

#### ○ 자치구 상황에 맞춘 수습·복구 중심의 훈련체계 지원 미흡

- '16년부터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(은평구 소재, 이하 ICTC)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
- ICTC에서 제공하는 훈련시스템을 경험한 자치구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으나, 소방서·자치구 합동 훈련시 공간 부족, 수습·복구 훈련 콘텐츠 미흡 등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

➔ 수습·복구 중심의 가상훈련환경 개발 등 훈련 지원 개선 방안 필요

#### ○ 재난 초기대응 협업기반 내 인적 네트워크 비활성화, 정보 공유 부족

- 소방서, 자치구 등 재난초기대응기관 간에 평상시 교류 기회가 적고 재난시 업무, 보유자원 등에 대한 상호이해가 낮아 비상시 원활한 협업 체계 가동 곤란
- 자치구 관할 중심의 재난·사고대응체제로 인해 관할 외에서 발생한 재난·사고에 대한 현장업무 노하우 공유 미흡 및 정보 취득 곤란

➔ 市를 중심으로 소방·자치구 등 재난대응 노하우·정보 공유 기회 확대

#### ○ 재난사고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노력 필요

- 긴급성, 돌발성 등 재난 현장의 특성으로 유발되는 담당부서·직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필요
- 재난관리부서 근무자의 현장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 개발

➔ 모바일 어플 개발, 통합지원본부 운영 표준화 등 현장 협업 지원 강화



### Ⅲ 추진 계획

#### 1 자치구 상황대응훈련 맞춤형 지원

##### ① 수습·복구 중심 가상재난환경 개발·적용

###### □ 추진 필요성

- '16년부터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(이하 'ICTC'로 표기)에서 소방서·자치구 합동으로 참여 가능한 가상재난환경 훈련 프로그램 제공
  - 훈련방식·시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, 자치구에 초점을 맞춘 수습·복구 중심의 훈련 프로그램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



- 수습·복구 중심의 가상재난환경 도입시 훈련효과 측정, 보완필요사항 도출 등 환류 기능을 갖춘 훈련평가 가능

➔ ICTC의 훈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습·복구 중심의 가상재난환경 개발 및 훈련 도입, 평가 추진 필요

###### □ 추진계획

- 자치구용 훈련 시나리오 및 가상훈련환경 개발('18.11월~'19.2월)
  - 훈련 시나리오는 자치구 소속직원의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생 빈도가 높은 상황과 수습·복구단계 중심의 협업 기능을 연계하여 기획

〈재난현장 수습·복구단계 중심의 13개 협업기능〉

① 재난상황관리	② 생활안정지원	③ 통신지원	④ 시설피해 응급복구
⑤ 에너지 복구	⑥ 재난관리 자원지원	⑦ 교통대책	⑧ 의료·방역 서비스
⑨ 재난현장 환경정비	⑩ 자원봉사지원	⑪ 사회질서유지	⑫ 수색·구조·구급
⑬ 재난수습홍보			

- 가상훈련환경은 기획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기 개발된 가상환경에 그래픽 모듈 등을 추가하여 개발 (ICTC 등과 협력하여 별도 TF 구성)

〈수습·복구단계 중심의 가상훈련환경(예시)〉



○ **훈련평가 표준 항목 개발 및 적용 ('19.1월 이후)**

- 초기 상황 조치, 상황별 필요한 13개 협업기능 정상 작동 등을 평가하고 환류할 수 있는 평가 항목 개발
- 훈련 참여 자치구에서 자체 평가관 지정 후 평가표를 활용하여 보완 필요사항 등 환류 조치

○ **수습·복구 중심의 ICTC 훈련 실시 ('19.3월 이후)**

- 가상훈련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수량의 ICTC 훈련부스를 확보하여 초기 상황에서 응급복구 완료까지 자치구 중심의 훈련 지원
- 가상훈련환경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'19년 ICTC 연간 훈련계획에 자치구 훈련기간 배정 협의 추진 (자치구 당 연 1회 이상)

※ '19년 훈련 실시에 따른 효과 측정 및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필요시 예산사업으로 최적의 가상재난환경 개발 추진

## ② 통합지원본부 전용 훈련용품 보강·활용

### □ 현 실태

- 각 자치구별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용 물품을 구비·보관 중이며 ICTC 훈련시 별도의 차량으로 해당물품을 운반하여 설치하고 있음



통합지원본부 운영 물품

통합지원본부 텐트

상황판

➔ 일부 자치구에서는 은평구까지의 훈련물품 운반 부담 등으로 통합 지원본부 설치 훈련을 기피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필요

### □ 추진계획

- 통합지원본부 설치 훈련용품 보강 ('18. 11월~12월)

- 품 목 : 8종 45점

주요품목				
텐트	테이블	접이식 의자	입식배너	안전모

- 소요예산 : 2백만원

- 예산조치 :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사업비(사무관리비) 사용

- 훈련용품 대여 및 관리 ('19. 1월~)

- 보관장소 : 재난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 청사

- 활 용 : ICTC 훈련시 대여 희망 자치구에서 사용 후 반납

※ 재난협력팀 담당자가 물품 반출 및 회수

### ③ 통합지원본부 가동 훈련 가이드북 제작

#### □ 제작 필요성

- 재난대비 훈련 매뉴얼 등은 이미 보급되어 있으나 통합지원본부 가동에 초점을 맞춘 참고자료는 부족
- 재난관리부서, 수습부서 업무담당자의 인사이동 시 신규 업무담당자의 통합지원본부 가동 및 ICTC 훈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서 필요

➔ 실제 훈련사진, ICTC 시설 이용법 등을 첨부하여 **신규업무 담당자도 훈련전반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 추진**

#### □ 추진 계획

##### ○ 훈련 가이드북 제작 ('18.11월~'19.3월)

- ICTC 훈련시설 소개, 자치구 훈련 절차, 통지본 조치 등 중점사항에 대해 사진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



- 집필이 완료된 가이드북은 내용검증 등을 거쳐 책자 및 전자파일로 보급 조치

- 예산조치 :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사업비(사무관리비) 사용

##### ○ 가이드북 활용 ('19. 4월~)

- 가이드북 활용 관련 자치구 교육 추진('19.4월/재난협력팀)
- ICTC훈련 실시 전 자치구 자체 교육시 활용('19.상반기/구 재난관리부서)
- 자치구 재난관리부서 인사발령시 가이드북 관련 이메일 발송(년 2회)

## 2 재난현장 협업역량 강화

### 1 상황대응기관 초기 공조 강화

#### □ 현 실 태

- 과거에 비해 자치구 재난총괄부서 신설, 업무범위 확대 등 변화가 있어왔으나 소방-자치구 현장 공조체계는 상대적으로 발전 저조
  - 소방에서는 재난·사고 초기대응이 자치구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크고 현장도착·상황판단 이후에 구청에 지원 요청
  - 자치구에서는 건축·구조물 붕괴, 대형화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에 대해서 초기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초기대응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제기

#### '18.10월 자치구 재난관리분야 설문 응답 사례 (소방-구청의 사고대응 협력 관련)

- ▶ 초기정보의 소방 집중과 재난대응인력 부족 등으로 다른 기관에 대한 배려 부족
- ▶ 협조를 구해도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협조를 꺼리거나 비협조
- ▶ 구청차원에서 해당 소방서의 상황을 알 수 없이 소방 상황실에 전화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 또한 대규모 재난 시 전화가 원활하지 못함
- ▶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, 피해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안내한 경우도 있었음

#### ↳ 상호간 업무체계 이해 부족, 현장 공조 절차 미비 등으로 불신 현상 가중

- 사고 발생시 초기대응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상황 지휘·공유 체계(소방-무전, 시·구-모바일)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호간 이질성으로 인해 초기에 신속한 공조체계 가동은 미흡

➡ 성공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초기상황에서 대응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조체계 강화 필요

## □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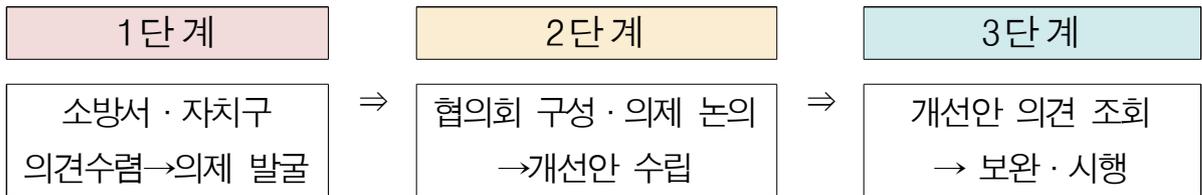
### ○ 소방서-구청 간 사고상황 초기대응 공조체계 개선

-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·사고대응을 위해 초기대응 공조체계 구축 관련 협의회\* 등을 구성하여 공조대상, 절차, 시스템 전산화 등 논의

\* 시 상황대응과, 현장대응단, 구청, 종합방재센터, 권역소방서 등

- 소방서, 구청 재난관리부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초기대응 공조체계 개선방안 관련 교육, 설문 등 실시

<주요 추진 절차>



### ○ 주요 상황 SNS대응시 공조 부서 확대

- 주요 상황 발생시 시청 및 관할구청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나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등은 별도 채널로 상황을 공유

⇒ 소방서-구청 초기대응 공조와 병행하여 상급 부서 대응도 실시간 공조 필요

- 변경방안 :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, 종합방재센터의 주요 상황대응 간부로 참석대상 확대

<SNS 대응 공조부서 변경안>

현행	변경안
(시청) 상황대응과, 재난유형별 주무부서	(시청) 상황대응과, 재난유형별 주무부서 + <u>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·방재센터</u>
(관할구청) 재난관리부서, 재난유형별 주무부서	(관할구청) 재난관리부서, 재난유형별 주무부서

## ②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표준화

### □ 추진 필요성

- 재난현장 업무는 혼잡한 현장상황, 다수기관 대응 등으로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우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업무체계 표준화가 필요
  - 현장 업무 추진시 혼용 가능성이 있는 용어, 재난대응기관 간 정의를 공유해야하는 용어 등을 파악·정비하여 모든 재난부서에 공유 필요
  - 자치구 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 시 소속직원을 식별하기 위한 기본복장이 자치구별로 상이하거나 구비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
- 표준화 대상으로 하드웨어 성격의 장비·시설·복장, 소프트웨어 성격의 업무절차·용어 등 선정 가능
  - '17년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지침이 시행되어 업무절차, 장비·시설 등이 표준화되었으나 기본복장, 용어 표준화는 미흡

➔ **혼잡한 현장상황**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**업무절차, 용어 등** 다양한 부분에서 **표준화 필요**

### □ 추진계획

- 재난현장업무 표준용어 선정·활용 ('18.11월~'19.3월)
  - 재난유형별 현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용어를 조사하고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용어 등에 대해 표준안을 수립하여 의견조회 후 활용
  - 훈련가이드북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배포하여 표준용어 사용 정착 추진
- 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 활동복 제작·배부 ('18.11월~12월)
  - 소방·경찰 등 초기대응기관과 식별되면서 현장업무 추진시 시인성·기능성을 갖춘 조끼형 복장 지급 추진 (자치구 재난관리부서 우선 배부)

초기 시안 디자인 및 자치구 선호도 조사 (10월)→디자인 확정(11월)→제작·배부(12월)  
※ 예산조치 : 2018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사용

  - 표준복 지급 이후 추가 소요에 대해서는 구청별 제작하도록 표준규격서 공유

### 3 재난현장업무 지원 모바일앱 개발

#### □ 추진 필요성

- 기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 예방·대비를 위해 기관의 임무와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현장대응요원 개인의 임무수행에는 미흡
- 재난발생시 혼란스러운 초기의 대응방법 등을 구체화·간편화하여 현장 대응 시 초동대응 골든타임 확보

➔ 복잡한 재난현장에서 간편하고 알기 쉬운 단계별 **현장업무절차**, **필수 정보** 등을 **개인 휴대폰**으로 **조회**할 수 있는 지원수단 필요

#### □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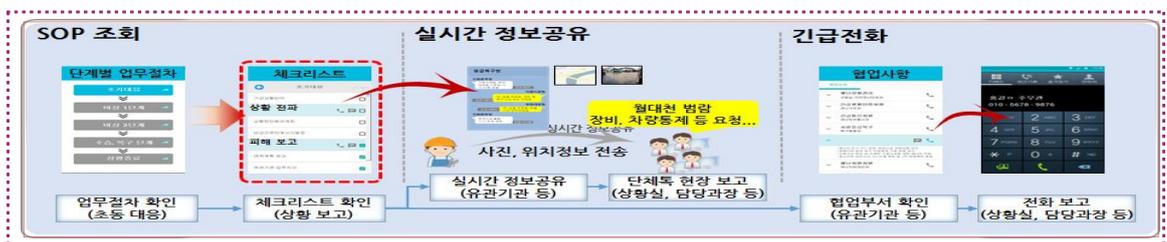
- 재난현장업무 지원 모바일앱 개발('18.11월~'19.7월)
  - 통합지원본부 담당자 개인대응수칙(SOP)\* 및 단계별 업무절차와 체크리스트 연계 등 현장대응요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요소 위주로 구성
    - ※ 필요시 자치구 재난관리부서 의견 반영 등을 위한 임시 TF 구성
  - 재난현장대응 모바일앱은 재난현장 요원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문기술업체 용역을 기반으로 개발
    - \* ① 체계도 ② 업무절차도 ③ 임무 체크리스트 ④ 각종서식 ⑤ 실무반 협업

〈 현장대응 모바일앱 주요기능 〉

- 개인대응수칙 빠른 조회 및 단계별 업무절차와 체크리스트 연계
-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간 유사시 긴급전화 가능

※ 소요예산 : 2018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교부세 활용

-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모바일앱 적용('19.8월 이후)
  - 담당자 교육·훈련을 통해 재난현장대응 시 모바일앱 적응성 확보 및 보완
  - 현장요원 초동대응 시 상황전파 및 협업기능 수행 등 골든타임 확보



## ① 재난현장 지원기관 협업 관리체계 정비

## □ 추진 필요성

-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긴급구조상황이 아니어서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이 생략되고 자치구에 상황이 인계될 경우 지원기관과의 협업체계 가동에 혼선이 있을 수 있음
  -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지침에 지원기관의 연락관 주요임무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나 연락관 소집 절차, 현장소통방식 등 세부사항 부재

➔ 재난·사고현장의 수습·복구 컨트롤타워인 자치구 통합지원본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협업 관리체계의 세부 기준 정비 필요

## □ 추진계획

- 현장 지원기관 협업 관리체계 정비 ('19년 상반기)
    - 현장에 도착한 지원기관과의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의사소통을 위해 업무 매뉴얼, 전용 대기소 지정, SNS 운영방식 등을 정비
- 업무 매뉴얼 : 세부 절차 등을 매뉴얼로 구성하여 자치구 의견 조회 후 지침에 반영
  - 전용 대기소 : 통지본용 텐트 외에 별도의 지원기관 협업용 텐트를 지정하도록 기준 정비
  - SNS 운영 : 현장 도착한 지원기관 연락관 지정자와 자치구 담당 팀장간 SNS(카카오톡 대화방 등) 대응 실시
- 지원기관 협업 관리체계 운용 훈련 지원 ('19년 하반기 이후)
    - 지원기관 협업 관리체계 정비 후 자치구별 자체 훈련 및 안전한국 훈련 개최시 적용하도록 지원(재난협력팀 훈련담당 등 출장)

## ② 재난현장 경험지식 공유·연찬 활성화

### □ 추진 필요성

-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별 자체 정기교육은 실시하나 인접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정보 공유 및 소통의 기회는 부족
  - 자치구 관내에서 이루어진 현장활동 중 특이점, 문제해결경험, 개선필요사항 등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와 공유 미흡\*

\* 소송·민원 제기 우려, 경험지식 보유 직원 인사이동 등이 주원인

- '15년부터 매년 하반기 자치구·소방 업무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실시해왔으나 담당자 교체 등을 고려하여 교류 기회 확대 필요

➔ 관할에서 있었던 재난·사고 대응과정에서 얻은 지식, 노하우 등 **재난경험지식 공유**를 바탕으로 **타 기관과 연대하는 기회 확대 필요**

### □ 추진계획

- 재난·사고사례 공유 미팅 실시 ('19년부터 연중 상시)
  - 자치구 재난부서 직원 등이 참석하는 시청 업무회의, 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과거 발생한 재난·사고를 분석하는 기회 제공
  - 대상 재난·사고에 대해 복기하고 참석자간에 유사경험 등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실시
- 재난현장 문제해결사례 공유대회 개최 ('19년 상반기 중 개최)
  - 재난·사고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노하우를 재난관리업무 담당부서에서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기회 마련(연 1회)

#### 대회 개최 방안

- ▶ 참석대상 : 시·소방·자치구·시 산하기관 재난관리업무 담당자 등
- ▶ 발표내용 : 경험한 재난·사고현장 대응사례 및 발생했던 문제의 해결 노하우 등
- ▶ 발표자 인센티브 : 포상금 지급('19년~), 시장표창 추천('20년~) 등
- \* '19년에는 '18년 배정된 재난평가 포상금 예산액 사용, '20년부터는 예산반영 추진

### ③ 찾아가는 재난관리 협업 컨설팅 운영

#### □ 추진 필요성

- 소방서, 자치구 재난안전부서 소속직원 인사이동시 유관기관 합동 훈련, 상황대응 등 타 기관과의 협업 관련 업무는 인계 곤란
  - 자치구의 통합지원본부 가동실적은 연 1~2회에 불과하므로 실제 현장경험 보유직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저조
- 통합지원본부 등 현장관련 업무는 상황발생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기본 담당 업무로 인해 현장 중심의 업무 숙달 미흡

➔ 일선 재난관리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필요

#### □ 추진계획

- 찾아가는 재난관리 협업 컨설팅 운영 ('19년 중)
  - 일선 자치구, 소방서 재난관리부서를 방문하여 안전한국훈련, 재난관리평가, 통합지원본부 업무 등에 대한 상담 및 제도개선 의견 청취 등을 수행

- 프로그램 운영부서 : 상황대응과(재난협력팀)
- 컨설팅 대상 : 자치구 및 소방서
- 운영방법 : 대상기관 희망일자에 방문하여 상담 등 실시

- 컨설팅 운영 결과 공유 ('19년 하반기)
  - 일선에서 자주 하는 Q&A, 제도개선 사례 등을 편집하여 공문, 메일 등을 통해 공유하고 안전총괄본부(상황대응과)를 구심점으로 하는 협업 지원 프로세스 정착 추진

## IV 과제별 추진일정 및 관리

### 1 과제별 추진일정

연번	과제명	추진일정									비고 (담당자)
		'18		'19							
		11	12	1	2	3	4	5	6	7월~	
1-①	수습 복구 중심 기상재난환경 개발 적용										고재홍
1-②	통합지원본부 전용 훈련용품 보강 활용										문현준
1-③	통합지원본부 훈련 가이드북 제작										송행민
2-①	상황대응기관 초기 공조 강화										고재홍
2-②	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표준화										고재홍 송행민
2-③	재난현장업무 지원 모바일앱 개발										송행민
3-①	재난현장 지원기관 협업 관리체계 정비										박종필
3-②	재난현장 경험지식 공유 연찬 활성화										문현준
3-③	찾아가는 재난관리 협업 컨설팅 지원										박종필

### 2 추진과제 및 성과 관리

#### 추진과제 관리

- 과제별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: 각 과제별 담당자(총괄 관리 : 재난협력팀장)
- 관리방법 : 분기 1회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미팅 실시 (상황대응과장 주재)

#### 성과 관리

- 각 과제별 완료시 성과 공유 : 소방서·자치구 등 대상으로 공문 발송 및 워크숍·교육 시 전파
- 주요과제 완료시 성과 보고 : 추진결과 별도 보고('19년말). 끝.